



등 토닥이고 손 잡아주는 따뜻한 부처미소



도심 속 사찰 무각사(주지 청학스님)엔 가을이 한창이다. 붉게 물든 단풍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어우러진 절집엔 신자 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지금 무각사에서는 석불조각가 오채현(58) 작가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내년 10월말까지 1년간 진행되는 대장점으로 작가는 25 t 트럭 6대로 파주 작업실에서 작품을 싣고 왔다. '돌에 새긴 희망의 연화미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인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친근한 부처님을 만나, 그 미소에 위안을 받는 전시다. 아름다운 경내 곳곳과 로터스갤러리 1층에선 모두 50여 점이 전시중이다.

경주 출신으로 경북대를 거쳐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한 오 작가는 거친 화강석으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낸다. 바티칸한국대사관에 설치된 한복 입은 성모상을 제작했고 월경사 'Happy Buddha' 전 등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무각사에서 만나는 그의 작품 속 부처님은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 경외심보다는 친근함과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고 온화한 미소를 접하면 빙그레 웃음이 번진다. 소설가 윤희영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돌에 피가 돌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수더분한 자세로 우리에게 말을 건넌다. 석불과 석탑을 접한 이들은 삶의 편안과 안락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동전을 이곳저곳에 올려두었다."

경내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대형 사방불(四方佛)이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면에 부처가 조각된 작품은 높이 3.5m, 무게는 18 t



무각사 전시 석불조각가 오채현 1년간 석불·호랑이 등 50점 눈길

에 이르는 대작이다. 고향 경주 남산의 25 t 원석을 다듬어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돌 속에 어떤 부처님이 들어있을까, 바라보기만한 3년 세월이었다. 절집의 석불을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만져 맨질맨질해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오 작가는 아예 '사방불'에 사람의 손바닥을 조각하는 특별한 시도를 했다. 사람들은 그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대어본다.

"불교 미술이라는 게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적으로 감각적이고 자유롭게 작업하려 합니다. 제 작품은 부처님을 향한 염원을 쉽고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소 짓는 표정이 많고 편안함과 친진함이 주가 되죠. 교리를 표현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부처의 모습을 담아내려 합니다. 21세기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 지쳐 있어요. 우리를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처가 우리 시대가 원하는 부처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전시작들에는 코로나 극복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대웅전 바로 앞에 세워진 대형 미륵불 역시 높이 5m, 무게는 16 t에 이르는 대작이다. 머리에 갓을 쓴 부처상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납작한 코와 가식 없이 부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벌거벗은 동자승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국적 정서가 담긴 소재를 우리 땅에서 나는 화강석'으로 표현해 온 오 작가는 호랑이도 즐겨 조각한다. 무각사



무각사 경내와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리는 오채현 작가 '석불조각전'

경내서 만나는 '해피 타이거'는 투박한 재질미를 그대로 살려 조각한 해학적이고 재미난 표정이 웃음을 머금고 한다.

로터스갤러리에서 만나는 작품도 흥미롭다. 영월 창령사에서 출토된 오백나한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양복입은 사내 등 꾸밈없고 익살스런 나한상 5점과 함께 화강석판석에 연꽃, 동자, 구름, 현대인의 모습 등을 담은 부조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토함산 자락에서 태어난 오 작가는 천마총, 분황사 인근에 살며 자연스레 불교와 친숙해졌고, 이는 불교미술 작가의 삶으로 이어졌다. 31살 되던 해 서양 조각의 근본인 그리스·로마의 조각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까라라 미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는 4·5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 같은 원시미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형박물관보다는 공원, 벤치, 화장실 등에서 '발견'한 그림을

수없이 스케치했고, 그 친진남함은 그의 작업의 근간이 됐다.

그는 화강석 조각엔 왕도가 없다고 했다. 눈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돌에 '달라붙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수천 수만번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작품이 막힐 때면 다락에 숨겨 둔 팔단지를 꺼내듯 운 주사를 찾는다고도 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느 범주에도 들지 않는 운주사의 석불은 그에게 영감을 준다.

느긋한 산책, 경내와 갤러리서 석불과의 만남, 조용한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까지 어우러지면 '행복한 절집 가을여행'의 완성이다.



오채현 작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최종은 작가 신진작가상 이다희

설치미술을 선보여온 최종은 작가가 제21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신진작가상은 서양화의 이다희 작가가 차지했다.



최종은 작가

광주신세계갤러리는 3일 1차 선정작가 8명을 대상으로 현장 직접 심사와 작가 개별 면담 등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은, 이다희 두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인 최종은(45) 작가는 중앙대학교 조소학과를 거쳐 런던대 슬레이드 예술대학교 조각전공 석사 졸업했으며 서울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린 'This is Orchestra' 전 등 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 출신인 이다희(33)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서양화와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글래스고 예술대학 회화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해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음악을 변안하는 방법' 전 등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대상과 신진작가상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별도의 창작 지원금 지원을 통해 내년 9월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도 열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5시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편 수상작품을 포함해 8명의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최종은 작 'This is Orchestra'



이다희 작 'The chord composition'

'로맨스 오페라'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사랑의 슬픔, 낭만, 기쁨, 행복 등을 오페라 아리아로 풀어내는 '로맨스 오페라'가 열린다. 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여성솔리스트앙상블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널리 알려진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오페라 9편을 새로운 형태의 리브스토티로 각색해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풀어낸다.

90분간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날'을 시작으로 '돈 조반니' 중 '그대의 손을 잡고', '라보엠' 중 '오 상냥한 아가씨'를 들려준다. 또, 오페라 '카르멘' 중 '사랑은 다루기 힘든 새와 같은',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에 이어 오페레타 '말괄량이 마리

에타' 중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한다.

총감독 및 연출은 이환희가 맡았고, 음악감독 정찬경, 무대감독 김지훈이 참여한다. 무대에는 김백호·김지옥·김정규·윤한나·남현주·신은선·신재희 등이 오른다. 전석초대. 문의 010-2584-21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신은선



김지옥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도굴
- 2관 도굴
- 3관 담보, 마이 리틀 포너: 레인보우 로드 트립
- 4관 도굴
- 5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 6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 9관 삼진그룹 영어토막반
- 7관 씨네카를 도굴, 소리도 없이
- 8관 씨네카를 미스터리: 더 무비, 소리도 없이 나인스 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아 집시 '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